

단원명: 1. 표현의 즐거움 (1) 햇비, (2) 고래를 위하여
 학습자: 1학년 반 번 이름

◆ 다음 시구에 쓰인 표현법을 보기에서 골라 적으세요.

<보기> ㉠ 직유법 ㉡ 은유법 ㉢ 의인법 ㉣ 상징

1. 아씨처럼 나린다 / 보슬보슬 햇비 ()
2. 맞아 주자 다 같이 / 옥수숫대처럼 크게 / 닷 자 엇 자 자라게 ()
3. 해님이 웃는다 / 나 보고 웃는다 ()
4. “날 보러 와요” 방방곡곡 꽃들의 아우성 ()
5. 내가 걸어가는 길에 / 눈보라 세차면 / 곧 해가 다시 뜨고 / 꽃들이 피어나리라 ()
6. 수학 시간이 끝나고 / 난사된 총알을 맞은 듯 / 여기저기서 아이들이 / 푹푹 쓰러진다. ()
7.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()
8. 내 마음은 호수요 ()
9.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. ()
10. 나는 나룻배 / 당신은 행인 ()
11.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()
12. 내 귀는 하나의 소라껍데기/ 어린 하느님 ()
13. 뺨 부비며 일어나는 꽃봉오리 ()
14. 전차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면 / 밤은 / 실처럼 가늘어지고 ()
15. 하늘은, 머물리서 오는 하늘은 / 호수처럼 푸르다 / 호수처럼 푸른 하늘에 /내가 안긴다. ()
16. 추억이란 / 지나기 전엔 돌덩이 / 지나고 나면 금덩이 ()
17. 너에게로 가는 / 그리움의 전깃줄에 / 나는 / 감전되었다. ()
18. 사월은 게으른 표범처럼 / 인제사 잠이 깼다 / 눈이 부시다 / 가려웁다 ()
19. 어린이는 / 미끄럼틀을 타고/ 하늘에서 내려오는/ 눈부신 하느님 ()
20. 샘물은 훨씬 더 맑은 소리로 노래 부르며 흘러간다. ()

129 2쪽에 계속

◆ 다음 시에서 '상징'으로 표현한 시어(단어)를 찾아보세요.

강물처럼 - 박일환 지금 조용히 흐르고 있는 저 강물도 한번은 굽이칠 때가 있는 거야. 태풍이 불든 아니면 어찌해 볼 수 없는 커다란 바위를 만나든 한바탕 소용돌이를 친 다음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지. 그렇게 깊어지고 넓어지면서 강물은 바다를 향해 가는 거야. 그러니 오늘 네 마음이 폭발했다고 해서 너무 낙담할 필요는 없어 언젠가는 만나게 될 바위를 지금 만나게 되었을 뿐이라고 여기면 돼. 자, 다시 흘러갈 거지? 주저앉지 않는 강물처럼 다시 일어나 바다를 향해 갈 거지?	▶ '상징'의 표현이 담긴 시어 찾기: ① ② ③ ④ ⑤
---	---

◆ 다음 표를 완성하세요.

	개념	예
직유		
은유		
의인		
상징		